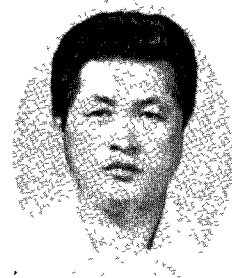


사랑이 성공이로

수원입북단지 찾아서

우리 주위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논리만을 제시하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점에서 저는 우리 회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만 우리는 모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취 재 부〉



〈이철우 단지장〉

양계업은 아직 그 안정성을 찾지 못하여 타 분야에 비해 상당한 투기성을 띄고 있는 것은 양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느끼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육계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육계업을 나름대로 안정된 상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있다. 이철우씨—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입북육계단지의 사령관,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맑은 하늘의 서울역을 출발하여 수원역에 내렸을 때는 수원하늘은 그렇그렇금새라도 비가 쏟아질 듯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역앞 공중전화가 보이자 언뜻 전화부터 해야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철우씨는 세무서에 출타중이란다. 수원세무서를 찾아 개인세과며, 이철우씨가 다닐만한 곳을 전부 수소문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심드렁한 기분이 되어 세무서를 나오니 실날같은 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질퍽질퍽해서 입북으로 들어갈 마음이 영 내키지 않고 있는 그런 터인

데 뒤에 오던 K 형이 부른다. 돌아보니 몇몇 사람이 같이 서있었다. 첫눈에 이철우씨였다. —어떻게 오셨소? 이처럼 곳은 날씨에...언제 보아도 관운장이다. 대추처럼 붉은 얼굴에 당당한 체격이 상당히 좋다.

—갑시다.

단호한 어조에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이것일까...? 신념에 찬 말과 행동, 이것이 오늘의 입북단지를 이룩하는 데 공헌할 것일까?) 기자는 달리는 차 속에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축산번영을 꿈꾸며 입북에 정착하다.

이철우씨는 1959년 서울농대 수의과를 졸업했다. 졸업후, 전남 도축정과정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으나 곧 사직서를 내고 69년 김천농림고등학교를 그만둘 때까지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축산에 대한 꿈을 키웠다. 마침 당시 김천농림고등학교는 향토개발학교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했었다 한다 재건국민운동이니 계단식 농토개발이니... 그 모두가 지금 생각하니 새마을운동의 전신이랄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반 농가에 병아리를 분양하고 그때만해도 전혀 생소했던 백신도 공급하는 등 축산, 특히 양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수원 입북에 정착하면서 그 꿈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입북에 정착했을 때 그곳은 소작농이 대부분이었고 양계라고는 (사실 양계라고도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홀린 날 곡식이나 밥찌꺼기를 먹이는 정도의 수수를 가졌을 뿐이었다.

—71년에야 인근 양계업자의 호응을 얻어 입북육계단지로서 출범을 한 셈이 됩니다 호응이라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넓은 평야에 의연히 자리잡은 육계단지

차는 수원·인천간 산업도로의 안개처럼 뿌러지는 빗속을 달리다가 왼쪽으로 아늑히 전개되는 평야속에 의연하게 위치해 있는 입북육계단지로 접어들었다. 도로변에서 한1500m 정도 될까?...자로 금을 그은 듯 일직선으로 죽 달려간 길 왼편으로 외딴집이 한채 동그마니 있었다. 1차 검역소—단지안으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들에게 숨이 막힐 듯한 분무소독이 실시된다 다시 100m 정도 더 들어가면 입북육계단지의 사령탑인 새마을회관이 우뚝 서있다 거기에서 다시 2차소독. 회관은 모든 초생추나 동물약품, 사료가 공동 입하하

여 분배되는 곳이다. 그리고 각 회원에게 입추될 때 3차소독이 실시된다.

—현재 총사육호수 35호(34호는 정회원, 1호는 준회원) —호당 평균사육수수는 3천~7천수로 단지내에 약20만수 정도가 바타리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료, 약품 및 초생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구입, 공동출하되는데 그것은 한 2,000여평의 단지내에서 모두 이루어 집니다.

질병예방이 곧 축산성공의 지름길이다.

—여기도 질병으로 인한 타격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지난 73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육계단지라고 출범은 시켜 놓았지만 아직 허술한조직, 허술한경영, 허술한 방역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질병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도 없었구요...그런데 그해 9월 호되게 연어 맞았습니다 모두 영문도 모르게 죽어 나자빠지는 닭들이 한두마리라야지요...근처 개울가는 삼시간에 닭들의 공동묘지로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흙구덩이를 메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섬찝합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이철우씨가 가리키는 곳은 지금은 작물포로 질서정연하게 경작되고 있었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다만 빗속에서 「그런 옛일이 있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벽에 걸린 도표는 뭐니까?

한 4명 남짓한 사무실은 보통 사무실과 같이 책상과 의자, 캐비닛이 있고 태극기가 있고 한쪽 구석에 금고, 그 위에 가지런히 그려진 많은 수치와 도표를 보고 기자가 묻자

—73년 뉴캐슬에 당하고 나서 「질병예방이 곧 축산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1차→4~5일령 생독백신비강접종, 2차→14~16일령 비강접종, 3차→24~26일령음수접종)을



(회원과 즐거운 한때. 앞줄 맨오른쪽이 이철우단지장)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들은 공동입추 혹은 공동출하 날자들이구요...

다시는 지난 73년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이철우씨와 회원들의 얼굴에 스치고 지나감을 기자는 뚜렷하게 볼수가 있었다.

..... **내앞에 작은 이익보다는 내일의 큰이익을**

소독은 질병예방의 기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진다. 마치 매일 매일 일기를 쓰기가 어려운 것 처럼... 습관 일 것이다. 그리고 과감한 양계경영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77년에도 뉴캐슬은 폭군처럼 날뛰었다. 전국을 판치고 누볐다. 입북도 그리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침투가 되었다. 그 진상은 이렇다.

—지난 3월 중순경—매일 육계를 구입하던 상인이 들어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다른 곳에 싼닭이 있어 그걸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수소 문해 본 결과 I 시의 B 단지—병계였다. 그러나 입북단지저 육계가 체화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상인들을 불러 들였다. 물론 1차, 2차, 3차 검역소를 지날 때마다 철저한 소독을 했다. 그러나—한 10일후 뉴캐슬이 발생했다. 200여수가 죽었다. 긴급 방역회의를 열

고 발생구역을 차단, 소독약을 양동이로 붓다 싶이 소독을 하였다

발생계군은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여 백신접종을 한번 걸른 계군이였다. 그리고 그 회원에게는 입추 금지의 벌칙이 가해졌다. 공동입추한 계군이 공동출하될 때까지...

회원들은 다시 깨달았다. 눈앞의 이익을 보려다간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 **“맘껏 부셔버리시오—후련하도록...” 그것이 단지의 시작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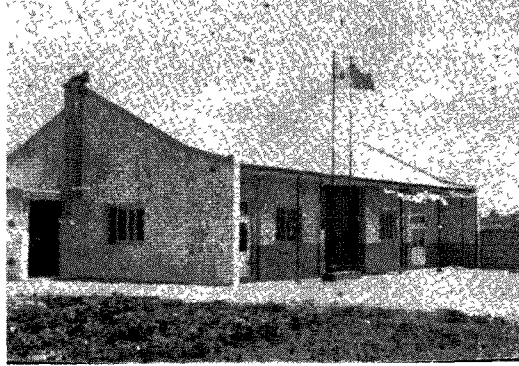
단지가 그러나 어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유대가 원만할 때그 조직은 놀랄한 발전을 가질 수 있다.

입북육계단지가 그 좋은 예이다
 이철우단지장에게 직접 그 사연을 들어보자...
 —처음 이 단지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양계경영을 할 수 있을까...생각했지요.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했지만 그것은 이론일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생각한것이 우선 회원간에 신의와 협동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간에 돌아가며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친목계라고나 할까요...처음 제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술이 얼큰해지자 어디서나 와 마찬가지로 옛날 감정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싸움을 붙였지요. 그릇이 깨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난장판을 이뤘지만 그새 저는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로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전부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때 제 안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요. 김동환 부단지장도 애를 많이 썼구요. 그러나 개인 별로 만나 회원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시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구입되던 사료 구입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H 사료 K 상무와 담판을 했지요. 그래서 당시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장과 직거래를 하여 중간마진을 배제 하였고 중간마진은 단지기금으로 적립 했습니다. 초생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생추구입시 수당 3 원, 사료대금에서 포당 100원의 금액이 적립되어나가니 그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 갑니다. 또한 월회비 2,000원 그런 것들이 모여 75년에는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였고 약품(특히 백신) 보관을 위한 대형냉장고도 구입했지요... 이렇게되자 회원들은 단 하루의 유희자금이 있으면 전부 단지사무실에 저금을 합니다. 마을금고지요... 자금이 필요하면 2 명이상의 연대보증하에 2%의 이자로 언제든지 신용대출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육계단지 사령탑 새마을 회관〉

.....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이해와 사랑이...

—단지의 운영체제는?

—단지장(이철우) 부단지장(김동환) 총무(박유환) 그리고 단지를 5개지역으로 나눈 지역대표가 있으며 부녀회와 청소년 4-H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회라는 것이 자기 사업때문에 충실해질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운영위원이라고 이름만 내걸고는 자기 실속만 차리느니라 정신없으며 공식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논리만을 제시하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난을 일삼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다?

그점에서 저는 우리 입북육계단지회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두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불평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기자는 이철우단지장의 빛나는 눈을 바라보며 차츰 감동 속에 들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입북육계단지 운영회의 피땀어린 노력의 댓가로 단지가 정상단계에 도달하자 운영위원들의 보수제를 채택했다한다 단, 현금지급이 아니라 운영위원의 양계장에 고용원을 채용해주고 그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 해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을 ‘대청소·소독의 날

로 정했지요. 일요일 아침 9 시가되면 단지내 앰프로 소독실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고압분무소독이 실시되면 운영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월3 회이상 모범이되면 포상을 하고, 지적을 받으면 병아리 입추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아 직 지적을 받은 회원은 없죠... 특히 이날은 계분처리작업까지 완수하기 때문에 계분냄새는 커녕 소독약 냄새가 단지내를 진동시키죠...

.....
회원간의 협조는 2 세대의 호행을

운영위원들이 초생추구입, 연중 시세에 따른 입추숫자조절 및 각호별 입추일자에 따른 출하순위부를 작성, 가격이 폭락해도 그 순위대로 출하가 실서된다. 아울러 방역면에서도 방역프로그램 대로 진행되었는가, 점검되며 회원들도 운영회의 지시에 절대 복종이란다.

한 조직의 성패는 운영위원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시정될 것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안전이 솔직하게 제기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후 단지운영에 반영한다고 한다. 반면에 청소년 4H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4H부는 사료포의 정리, 판매를 맡고 있다 단지에서 지정한 액수 이상의 금액은 학용품장

만은 물론 방학같은 휴가때 여행을 떠난다 지난 어버이 날에는 4H에서 새마을회관에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춤과 노래로 부모들을 감격하게 했다고 한다. 협동과 이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 후 기

소탈하고 신념에 찬 이철우단지장이하 입북 육계단지회원들의 의욕에 찬 생활은 어디서 비롯했을까...?

사랑—그것일 것이다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것은 상대의 결점을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단지내의 자체공급용 부화장과 종계장의 건설, 그리고 도계장 시설을 갖추는 일입니다...그것이 당면과제이며 2세를 위한 제2단지조성이 또한 우리들의 포부입니다

커다란 손으로 굳은 악수를 하는 단지장과 회원들의 꿈이 꼭 이루어 질것을 기자는 마음속으로 믿어 의심치않는다. (배)

◎ 독자가 만드는 잡지
월간 양계

문장력을 걱정마시지 말고 이번 글을 보내 주세요

- 체험기... 질병, 판매등 일선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 성공사례...크게 성공해야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었을때 그것은 성공입니다.
- 농장일기...농장에서 일하며 매일매일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일기는 귀한 자료입니다.
- 수필...자유자재로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취급종류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2) 축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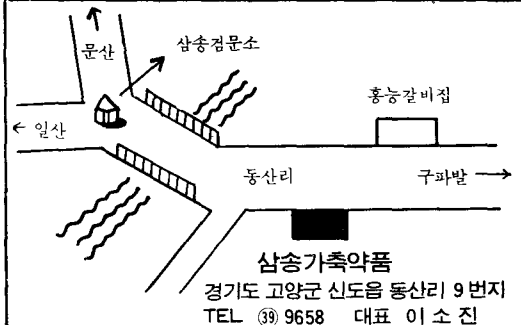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가구 일절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세미
- 노계 { 백색
유색

☎ (39) 9658

삼송가축약품상사



삼송가축약품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9번지
TEL 39 9658 대표 이소진